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44

놀라운 힘을 발휘한 삼손

(사사기 16:4~16:31)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블레셋에 놀러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데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의 높은 사람들이
데릴라를 찾아왔어요.

“삼손이 너를 좋아한다고 하니
네가 삼손을 구슬려서 힘의 비밀을 알아 오거라.
그리하면, 너에게 큰 돈을 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데릴라는 큰돈을 받을 생각에
신이 났어요.

데릴라는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며칠 후, 삼손을 만난 데릴라가 은근슬쩍 삼손에게 물었어요.

**“삼손, 당신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이 세상에 당신을 꼼짝 못 하게 만들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자 삼손이 대충 말을 꾸며냈어요.

**“헤헤. 뭐, 방법이랄게 있나.
물에 젖은 일곱 개의 끈으로 나를 묶어버리면
나는 보통 사람들처럼 힘이 약해진다오.”**

데릴라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삼손이 잠든 사이에 몰래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일곱 개의 젖은 끈으로 삼손을 묶어버리게 했죠.
사람들을 숨겨놓고 데릴라는 화들짝 놀란 체하며
삼손을 깨웠어요.

**“삼손! 어서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뭐라고? 누가 날 잡으러 와?”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는
일곱 개의 끈들을 순식간에 끊어버렸어요.
마치 불에 타버린 실처럼
젖은 끈들은 쉽게 끊어지고 말았죠.
그걸 본 데릴라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기가 차서 정말!
삼손?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꿈쩍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달란 말이에요!”**

그러자 삼손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암. 알았소, 알았소.
사실은 말이오 이런 쓰다 남은 끈들 말고
튼튼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쓰게 된다고.
이제 알려졌으니 됐소? 아우 졸려.”

데릴라는 재빨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졌고
그들이 새 밧줄을 가져왔어요.
삼손은 여전히 꿈아떨어져 있었고
데릴라는 삼손을 밧줄로 묶어버렸죠.

**“삼손! 삼손 일어나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아이참, 귀찮게 또 무슨 일이에요?”

삼손이 몸을 뒤척이며 일어나자
이번에도 튼튼한 밧줄이 실처럼
푹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데릴라는 약이 잔뜩 올랐죠.

**“삼손, 정말 나를 바보로 여기고 골려 먹는군요!
정말 섭섭해요.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그렇게도 힘든가요?
아오 정말...”**

끈질긴 데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번 삼손이 찾아올 때마다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이제 삼손은 데릴라가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마침내 삼손은, 데릴라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죠.

“아, 알았소. 알았소. 사실을 알려줄 테니
이제 그만 좀 하시오.
내 기다란 머리카락이 그 비밀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어요.
만약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나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어요.”**

**데릴라는 이번이야말로 삼손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을 무릎에 누이고 재운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을 잘라버렸죠.**

“삼손! 일어나 봐요, 어서 일어나 봐요!”

삼손은 몸을 일으키면서 이전처럼
힘을 쓰려고 해봤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엾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어요.
블레셋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멀게 만들었고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둬버렸죠.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삼손의 몸보다도
큰 멧돌을 깔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삼손은 매일매일 멧돌로 곡식을 가는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삼손의 머리카락은 조금씩
다시 자라나고 있었죠.

하루는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커다란 신전 안에서
화려한 잔치를 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였지만
사람들은 모두 삼손을 비웃기 바빴죠.

**“우리의 다곤 신전에서 건방진 삼손 녀석을 넘겨주셨으니
어찌 축하할 일이 아니겠소? 하하하.”**

**“헤헤. 아, 그렇고말고요.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백성들을 수도 없이 해친 자가 아닙니까.
이참에 삼손 녀석을 여기로 불러내서
우리 앞에서 재롱이나 떨게 하면 어떨까요? 킬킬킬.”**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삼손은 사람들로 가득 찬
신전 한가운데로 끌려왔어요.
지붕 위에만 3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을 만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삼손을 비웃고, 조롱하고,
삼손에게 침을 뱉기도 했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던 삼손.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앗아간 저들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손을 더듬어
신전 가운데에 있는 두 기둥을 붙잡았어요.
신전 전체를 받치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었죠.
양손에 각각 기둥 하나씩을 붙잡은 채
삼손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힘이 삼손에게 돌아왔어요.
신전의 두 기둥이 쏙 뽑혀버렸고 그 커다란 신전이
순식간에 폭삭 무너져 내렸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
누구보다도 특별했던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